

# 『호색오인녀』(好色五人女)의 여성관

이 총 호\*

## 차례

- I. 서론
- II. 본론
  - 1. 『호색오인녀』 창작시기의 시대배경
  - 2. 각 권의 결말구조
  - 3. 미혼녀와 기혼녀에 대한 시각의 차이
- III. 결론

## I. 서론

일본 근세 초기의 대표작가인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의 『호색오인녀』(好色五人女)<sup>1)</sup>(이하 『오인녀』)는 에도(江戸)시대 조쿄(貞享) 3년(1686) 2월에 간행된 우키요조시(浮世草子)<sup>2)</sup>작품이다. 원래 하이카이시(俳諧師)였던 사이카쿠가 소설로 전향해서 『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을 발표하여 대성공을 거둔 이래, 본 작품은 『호색이대남』(好色二代男), 『사이카쿠쇼코쿠바나시』(西鶴諸國ばなし), 『완큐잇세노모노가타리』(腕久一世の物語)에 이은 사이카쿠의 소설 중 다섯 번째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의 호색물(好色物) 작품 중에서 처음으로 유리(遊里)를 벗어나 현실사회에서 소재를 구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인녀』는 오나쓰(お夏)를 비롯한 다섯 명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 연애회정과 비극적 결말을 그리고 있다. 또한 그 구성은 전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권은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섯 쌍의 남녀의 연애, 밀통사건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제사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사건의 상세한 내용

\* 고려대학교 강사

은 분명하지 않지만, 모두 당시의 가요·연극·가제문(歌祭文)<sup>3)</sup> 등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어서,<sup>4)</sup> 당시의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주지(周知)의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오인녀』에는 발생한 시기와 장소가 각각 다른 실재사건들을 모델로 하여 사건의 대강의 줄거리는 따르면서도, 새로운 창작이 가미되어 독자들이 기존의 가요·연극·가제문(歌祭文)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는 다른 세계를 그리고 있다. 이미 독자들에게 알려진 이야기들이 『오인녀』라는 작품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면서, 거기에는 『오인녀』만의 독특한 취향이 드러나게 된다.

『오인녀』에서는 각 권의 다섯 여주인공에 대해서 각각 다른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른 시각은 특히 각 권의 결말구조에 있어서 더욱 더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권과 4권의 오나쓰와 오시치, 그리고 2권과 3권의 오센, 오산에 대한 작자의 서술시각이 차이를 보이는데, 오나쓰와 오시치처럼 결혼하기 전의 미혼여성인 경우와 오센, 오산처럼 기혼여성인 경우, 각각의 묘사에 있어서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묘사에서의 차이를 통하여 『오인녀』에서의 여주인공들에 대한 작자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다.

『오인녀』의 작가 사이카쿠가 조년출신이고, 그 독자층도 주로 같은 조년계층이었으며, 그의 작품들 대부분이 현실 속에서 생활하는 조년들의 생생한 모습들을 그렸다고 볼 때, 『오인녀』의 각 권에 나타난 여주인공에 대한 서술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주인공들에 대한 시각을 각 권의 서술적 특징과 결말구조를 통하여 파악해 봄으로써 이러한 여주인공들에 대한 시각이 『오인녀』가 창작된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호색오인녀』 창작시기의 시대배경

『오인녀』에서의 여주인공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의 연관선상에서 파악함으로써, 더욱 분명해 질 수 있다.

『오인녀』가 집필된 시기는 일본의 근세초기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사회적으로 전국시

대의 전란이 끝난 후, 막부체제가 성립되어 사회가 봉건제도의 바탕아래 안정되어 가던 시기였다.

중앙집권화를 위하여 막부가 새로운 질서로 주자학을 관학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인의 정신생활과 사상생활이 종교의 영향 아래 있던 시대에서 유교의 도덕률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는 시대로 바뀐다. 이에 막부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만들기 위해 충효를 근본으로 하는 신분제도와 가족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유교적인 사회질서를 구성하게 된다. 신분제도는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종적관계를 만들어 내고, 가족제도는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복종관계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신분제도와 가족제도는 중세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근세적인 현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근세의 서민문학은 이러한 도덕과 제도와 마찰을 피하고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모든 연애를 불의로 여겨 인정하지 않고, 결혼은 주인 또는 부모의 명령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주인이나 부모의 허가 없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려고 하는 자는 도덕 및 법률에 의해 처분되어 지는 것이었다. 또 신분제도를 지키기 위해 「주인의 딸과 연애를 한 자는, 주인의 고소에 의해, 사형에 처해지거나, 멀리 섬으로 유배되어지거나, 가법게는 추방을 당한다」고 하는 법률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분제도에 의해 지켜지는 봉건적인 질서를 가장 파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자유로운 젊은이들의 연애결혼이었던 것이다.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혼은 부모에 의해 결정되고, 집안, 신분, 재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었다. 당사자끼리의 애정이나 이해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음대로 결혼하려고 하면, 조닌사회에서는 간도(勘当, 의절)라고 하는 법적인 제재가 준비되어 있었고, 무가사회에서는 데우치(手打ち, 무사가 가신이나 조닌 등 아랫사람을 스스로 베는 것)라는 제재가 행해졌다.

그리고 다음으로 처의 남편에 대한 절대복종도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대부분이 애정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처의 정조에 대해서 남편들은 자신을 할 수 없었고, 이것을 법률로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남편이 있는 여자가 간통의 현상이 발각된 경우,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거나, 만약 도망갔다가 잡히면, 책형(磔, 옛 형벌의 하나로, 기둥에 묶어 좌우 옆구리부터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의 형에 처해지는 엄격한 간통죄에 대한 처벌이 행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서민의 세계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남녀관계는 바로 부부관계만을 의미하는 것

이었고, 그 외의 남녀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남자를 가지려면 단지 한 명뿐이어야 한다.<sup>5)</sup>」라고 해서 여자에게 있어서 남녀의 사랑은 바로 부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만 허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봉건제 사회를 지탱한 두 가지 제도, 즉 신분제도와 가부장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조난들은 신분제도를 벗어나기 위해 유곽이라는 도피처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sup>6)</sup> 이 또한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고, 가족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일탈의 행동을 하거나, 출가를 하여 불교적 도피, 즉 내세론적 세계관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근세의 서민문학은 이러한 도덕과의 마찰을 피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에도 전기의 사회는 신분제도와 가족제도라는 새로운 명령과 복종의 사회조직이 새로운 근세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오인녀』는 다섯 여성의 비극적 사랑이야기를 그린 것이고, 이러한 비극은 다섯 여성이 당시의 제도에 위배되는 사랑을 추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오인녀』 작품 안에는 당연히 당시의 신분제도·가부장제도와 마찰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랑은 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어 간다.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사이키쿠가 『오인녀』를 통하여 현실 속에서 처음으로 소재를 구하였다든 점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아간 다섯 여성의 비극적인 연애이야기를 그린 『오인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대배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2. 각 권의 결말구조

『오인녀』의 5권 모두 각각 다른 결말을 맞이하고 있고<sup>7)</sup>, 이런 다른 결말들에서 여주인공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다.

1권 「姿姫路清十郎物語」에서는 세이주로(清十郎)와 오나쓰(お夏)가 도주를 하다 붙잡혔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울며 슬퍼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모두 가엾다고 생각한 것이다.<sup>8)</sup>」라고 하고, 또 세이주로가 사형 당했을 때는 「가엾게도 25세의 나이로 4

월 18일에 처형당했다. 참으로 덧없는 세상이라며 처형을 본 사람들은 해질 녘의 소나기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눈물로 소매를 적시고, 애석히 여기며 슬퍼했다」<sup>9)</sup>, 마지막 부분에는 「세상의 슬픔이란 이와 같은 것이다」<sup>10)</sup>,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강에 사랑이야기의 새 배를 만들어 띄워」<sup>11)</sup>라 하여 세이주로의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가제문(歌祭文) 등에 나타난 세상의 동정과 일치하고, 세이주로의 죽음과 오나쓰의 출가에 대해 작품의 곳곳에서 동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인의 딸과 데다이(手代)의 연애를 불의(不義)로 보는 사회적 관습에 대한 의식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로 이야기를 맺게 된 것이다.

2권 「情を入し樽屋物語」에서는 오센(おせん)의 간통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는다. 간통사건은 2권의 전체 5장 중 마지막 5장에서만 다루어지고, 앞부분의 1장에서 4장까지는 소녀시절 오센(おせん)과 다루야(樽屋)의 연애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간통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사건 전개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보면 2권에서는 주인공 오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연애과정에 있어서의 사건들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가 전개된 것이다. 그리고 밀통 도중 다루야에게 발각되어 조자에몬(長左衛門)이 도망가는 부분을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해학적 장면으로 그림으로써 결말의 비극적 느낌은 사라지고 만다. 한편 오센은 간통 도중 다루야에게 발각되어 자살한다. 하지만 원래 사건에서 오센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인녀』에서는 마지막을 오센의 자살로 처리함으로써 2권의 결말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오센은 결혼 후 처음에는 남편을 잘 받들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여 부부사이에는 정겹고 아이도 두 명 태어나게 되지만, 고지야 조자에몬(麴屋長左衛門)과 바람을 피우게 됨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 『오인녀』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런데, 여자라고 하는 것은 변덕스러운 것이라서 …(중략)… 인간된 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색의 길이다」<sup>12)</sup>라고 하여 유부녀의 간통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고, 「악한 짓을 하면 천벌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다」<sup>13)</sup>라고 마지막 끝을 맺고 있는 것이다.

3권 「中段に見る曆屋物語」에서 오산은 일찍이 당대의 고마치(小町, 헤이안시대의 가인으로 절세의 미인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불릴 정도의 미인으로, 다이쿄지(大經師, 표구사)와 결혼해서도 지극히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다.

「부부가 사이 좋게 3년을 보냈다. 아침저녁으로 집안을 지키는 아내의 본분을 잊지 않고 …(중략)… 이 이상 있을 수 없는 아내였다」<sup>14)</sup>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한 여자(人妻)의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하녀 린(りん)이 보낸 편지에 대한 모에몬(茂右衛門)의 좀 건방진 듯한 답장을 보고는 모에몬에게 한방 먹이기 위해 자신이 린을 대신하여 지는 도중 뜻하지 않게 모에몬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다. 그리고 모에몬과 함께 도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오산의 모습을 『오인녀』에서는 「미래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이 좋아서 목숨을 걸고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sup>15)</sup>」라든지, 「덧없는 세상이라서 더더욱 멈출 수가 없다.<sup>16)</sup>」라고 바람기 많은 여자(いたずら女)로써 오산을 평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 최후는 조금도 추함이 없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다. 지금도 처형 때의 열은 노랑 고소테를 입은 오산의 모습이 보일 것 같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남아있다.<sup>17)</sup>」라고 그냥 세상의 평이 간략하게만 서술되어 있다.

4권 「戀草からげし八百屋物語」에서 오시치(お七)는 방화의 죄로 처형을 당하게 된다. 이런 방화와 화형의 과정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히 처리되어 있지만, 이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상세히 서술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는 「처형의 날, 오시치가 입고 있던 군나이지마의 고소테자투리까지, 세상 사람들은 일부러 주워서, 자손대대까지도 이야기거리로 하려고 생각했다.<sup>18)</sup>」라고 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죽음을 슬퍼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기치사부로(吉三郎)의 출가에 있어서도 「이 앞머리가 떨어지는 가련한 모습을 보고는, 득독한 스님도 면도칼을 던져 버려서, 만발한 꽃이 일순 거센 바람으로 흩뜨려 놓인 것 같고, 생각해 비교하니 기치사부로는 목숨은 붙어있지만, 오시치의 마지막보다도 더욱더 불쌍하다. 그런데 체발하고 보니, 고금에 드문 미승으로, 애석하게도 중이 죄어버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랑의 동기로 출가한 사람은 도심이 견고한 것이다. 기치사부로의 아니분도 고향인 마쓰마에로 돌아가, 검정빛의 가사를 입은 몸이 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남색여색이 뒤엎힌 사랑이고, 가없는 이야기이다. 허무한 것이다. 꿈이다. 환상이다.<sup>19)</sup>」라고 출가한 기치사부로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담아 평하고 있다.

5권 「戀の山源五兵衛物語」의 실제사건의 주인공들은 신주(心中)를 하는 슬프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인녀』에서는 두 주인공을 죽이지 않고, 오만(おまん)의 부모를 만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맺고 있다. 이는 하이카이(俳諧)의 렌구(連句)의 마지막 구는 축언(めでたい句)로 끝낸다고 하는 형식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sup>20)</sup>

따라서 5권의 결말은 5권 「戀の山源五兵衛物語」의 결말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인녀』 전체의 결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두 주인공은 모두 죽고, 독자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5권을 해피엔드로 끝냈기는 했지만, 이미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비극적 결말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오인녀』에서는 여기서 비극적 결말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보다는 1장과 2장의 겐코베(源五兵衛)의 남색취향, 그리고 3장과 4장에서의 오만의 연애의 성취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권이 해피엔드로 끝난다고 하고, 또 이러한 결말이 하이카이의 아게쿠(揚句)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해피엔드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축언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은 작가 사이카쿠의 작법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1권과의 관련성 속에서 공간 창출을 위해서 『오인녀』에 장치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3. 미혼녀와 기혼녀에 대한 시각의 차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인녀』에서는 결말구조가 각각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 이는 특히 미혼여성인 1권과 4권의 오나쓰, 오시치와 기혼여성인 2권과 3권의 오센, 오산이 각각 미혼이나 기혼이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랑을 하게 되는 동기, 결말에 이르는 방법 또한 다르다. 본장에서는 『오인녀』에서 여주인공들이 미혼이나 기혼이나에 따라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사랑에 이르는 동기

『오인녀』가 1권과 4권의 오나쓰, 오시치와 2권과 3권의 오센, 오산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서술되어지고 있는 것은 우선 이들이 사랑을 하게 된 동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방탕했던 보람도 있는 법. 보는 것만으로는 알지 못하는 좋은 점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여자가 누구나 반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오나쓰는 자기도 모르게 세이주로에게 마음이 끌렸다.<sup>21)</sup>

당장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가시를 뽑아내자, 젊은이는 얼굴에 오시치의 손을 꼭 잡았

다. 오시치는 손을 떼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보고 계시므로 그럴 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떨어졌지만, 그 때 일부러 집계를 그대로 가지고 와 버려서, 그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핑계로 뒤따라가서 이번엔 반대로 오시치가 젊은이의 손을 잡으니, 이것으로 서로가 연모하는 사이가 되었다.<sup>22)</sup>

위 예문에서 보듯이 오나쓰와 세이주로, 오시치와 기치사부로는 사랑을 하게 되는 계기가 서로에게 애정을 느껴서 그것이 사랑으로 발전해 갔다고 볼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모를 느껴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오나쓰와 오시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녀들의 그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오인녀』에서는 오나쓰와 오시치의 사랑이 동기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나쓰와 오시치의 사랑의 동기가 이런 것에 반해 오센과 오산의 사랑의 동기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이 마음. 어차피 누명을 쓰고 염문이 난 바에야 이제 시비를 가릴 수도 없어. 조자에몬을 유혹해서 저 여자 뒤통수를 쳐서 깜짝 놀라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남편밖에 몰랐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버리고 곧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고, 몰래 미리 의논하여 언젠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sup>23)</sup>

“이것은 또한 밍기도 하다. 세상에 많고 많은 것이 남자 아닌가. 린도 어느 정도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에몬 정도의 남자를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또 한번 연애편지에 마음을 실어 그리워하는 마음을 호소하고, 모에몬이 그 마음만 먹으면 한 방 먹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여<sup>24)</sup>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오센과 오산은 처음부터 조자에몬과 모에몬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조자에몬의 부인의 질투심에 대한 보복, 하녀 린에 대한 모에몬의 건방진 태도에 대한 보복이라는 부차적인 이유로 인해, 뜻하지 않게 혹은 실수로 사랑의 행로에 빠져들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그것이 그녀들의 진심에서 나온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만약 『오인녀』의 주제를 다섯 여인들의 인간성 추구의 성취 과정으로 본다면, 이렇게 사랑의 동기가 다른 것 또한 『오인녀』에서 이들 여주인공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오나쓰, 오시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에 의한 순수한 동기에 의하여 사랑이 시작된 반면에, 오센과 오산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에서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수나 고통 먹이려고 하는 장난기와 비슷한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나쓰와 오시치의 사랑이 진정한 것임에 비해, 오센과 오산의 사랑이라는 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은 사이키쿠가 오나쓰, 오시치에게는 긍정적 시선을, 오센, 오산에게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2) 결말에 이르는 방법

이러한 『오인녀』내에서의 여주인공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주인공들을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상대로 세이주로는 관청에 불려나가서 생각지도 못한 문초를 당했다. 다지마야(但馬屋)의 가옥 내부에 있는 창고의 철제선반에 있었던 금화 700량이 분실됐다는 것이다. 이는 오나쓰에게 훔쳐내게 해서 세이주로가 갖고 도망갔다고 하는 소송이 있었고, 사정이 사정인 만큼 해명도 통하지 않아 아아, 가엾게도 4월 18일에 25세의 나이로 처형당했다.<sup>25)</sup>

“다시 화재가 일어나면 기치사부로님을 빌 수 있는 인연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찮은 우발심으로 방화를 생각해 냈다니 불행한 일이었다. 연기가 약간 올랐을 뿐인데 사람들은 떠들어대고 수상한 화재라고 자세히 보니, 연기 속에서 오시치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을 캐문자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털어놓았기 때문에, 불쌍하게도 방화의 죄를 묻게 되었다. …(중략)… 이윽고 저녁종이 울리기 시작할 무렵, 시나가와부근의 스즈노모리에 있는 사형장에서 화형에 처해졌다.<sup>26)</sup>

위 예문에서 보듯이 세이주로와 오시치가 사형에 처해진 직접적인 이유는 밀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세이주로는 금화 700량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졌고, 오시치는 방화의 죄로 화형에 처해졌다. 이는 둘 다 부모 몰래 밀통을 한 것이 죽음을 맞이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달리 말하면 세이주로와 오시치가 부모 몰래

밀통한 것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인녀』에서는 이야기를 비극적 결말로 맺기 위해서 금화 700량의 도난사건과 오시치가 방화를 했다는 구도를 설정한 것이다. 특히 1권에서 세이주로의 흠뻑다는 누명을 쓴 금화 700량은 후에 다시 오나쓰의 집 창고에서 다시 발견되고, 오나쓰가 출가한 뒤 다지마야는 이 금화 700량을 불사(仏事)에 공양해 세이주로의 명복을 빌었다고 하는 점에서 세이주로의 죽음을 더욱더 안타까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 (3) 주인공들에 대한 서술태도

『오인녀』에서는 미혼녀인 오나쓰·오시치에 대한 서술과 기혼녀인 오센·오산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 작가의 어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시중드는 여자들이 간신히 말려서, 지금 죽어서는 헛된 죽음입니다. 그 죽으려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길어길이 망자를 애도하는 것이, 세이주로님이 성불하시는 길입니다. …(중략)…당시, 이것을 가미가타(上方)에서는 교젠(狂言)에 구성되어, 먼 나라(遠國)의 마을에까지 오나쓰세이주로(お夏清十郎)의 이름은 전해진 것이다. 이거야말로, 새로운 강에 사랑이야기의 새 배를 만들어 띄워, 뜨거운 마음을 실어 저어갔으나, 그 끝은 거품같이 덧없는, 가련한 세상의 모습이다.<sup>27)</sup>

1권의 마지막 부분은 출가한 오나쓰가 죽은 세이주로를 공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조히메(中將姬)<sup>28)</sup>의 환생이라고 말하면서 오나쓰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긍정하는 내용으로 1권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리고 시중드는 여자들의 입을 빌려서 출가를 해서 망자, 즉 세이주로를 애도하는 것이 성불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오나쓰가 출가함에 의해서, 오나쓰와 세이주로의 사랑이 세이주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사랑이 끝났더라도, 내세에서의 사랑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29)</sup> 즉 출가하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거의 동등한 것이고, 출가를 함으로써 세이주로의 영(靈)을 달래는 극락왕생(菩提)의 길로 전진하는 것이, 자신의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서는 세이주로를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 슬픔은 당연하게 이해하지만, 오시치가 마지막에 당부하여 말해 둔 것은, 기치사부 로님이 진심으로 정이 있으면, 덧없는 세상을 버리고, 어느 종파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출

가하셔서, 이렇게 죽어가는 나의 명복을 빌어 주신다면, 정말로 기쁘게 생각할 거예요. 부부의 인연은 두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sup>30)</sup>

4권에서 오시치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기치사부로를 말리며, 오나쓰가 방화죄로 사형당하기 전에 남긴 말을 들려준다. 여기서 오시치는 스스로 부부의 인연은 두 세상이라고 말하며, 기치사부ろ가 출가하여 자신의 명복을 빌어준다면, 둘은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앞선 1권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내세관에 근거하여, 둘의 사랑이 현세에서는 끝났지만, 출가를 통해 내세로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인녀』에서는 1권과 4권의 결말에서 오나쓰와 기치사부로를 출가시킴으로써, 오나쓰세이주로(お夏清十郎)와 오시치기치사부로(お七吉三郎)의 연애·밀통사건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는 오나쓰와 오시치가 부모의 눈을 피해 몰래 밀통을 한 반도덕적인 사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여기지만, 한편 둘이 한 곳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혼녀인 2권의 오센과 3권의 오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오센은 남편을 소중히 하고, 흐린 날이나 바람이 부는 때는 밥통을 감싸서 식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 누워있는 남편의 배갯머리에서 부채를 떼지 않고 남편이 짐을 비운 때는 저녁 무렵부터 문간을 꼭 닫고, 외간남자에게는 꿈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입만 벌렸다 하면 '우리 남편이...' 하면서 주책없이 정사이야기를 지껄이고, 세월이 흘러 정겨운 부부사이에 아이가 두 명 태어났다. 그리고 아이가 생겨도, 한층 더 남편에게 신경을 썼다.<sup>31)</sup>

꽃의 아름다움, 새벽달의 아름다움에도 이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지 아내만 바라보고 금실 좋게 3년을 보냈다. 아침저녁으로 집안을 지키는 아내의 본분을 잊지 않고 손수 벤가라(べんがら)옷감을 열심히 짜고, 남편의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 검약을 제일로 하고 아궁이의 불도 장작을 함부로 태우지 않고, 가게부도 부지런히 쓰는 배려도 보통집에는 이 이상 있을 수 없는 아내였다.<sup>32)</sup>

위 예문에서 보듯이 오센은 처음 다루야와 만나기 전에는 색도(色道)는 전혀 모르는 여자로 표현된다. 하지만 노파의 주선으로 다루야를 알고 난 뒤부터는 오히려 오센 쪽에

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센과 오산은 결혼한 후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남편을 잘 받들고, 일도 열심히 하는 이상적인 부인의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원래부터 바람기가 있었던<sup>33)</sup> 오센과 오산은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인 조자예몬, 모에몬과 밀통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인녀』의 1권과 4권에서는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을 슬퍼하고 동정하는 한탄적 어조가 많은 것에 비해서, 2권과 3권에서는 처음에는 정숙한 여성이었다가 바람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변해가는 오센과 오산의 모습, 그리고 세태에 대해서 훈계하는 듯한 어조로 말하는 부분이 보인다.

이런 부부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무서운 것이다. 남편을 사별하고 칠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음 남편을 구하고 이혼당하면 다섯 번이고 일곱 번이고 시집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최하위 사람의 마음씀씀이이다...(중략)... 아무리 숨겨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수는 없다. 인간 된 자의 외경심으로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색(色)의 길이다.<sup>34)</sup>

위 예문은 바람기 있는 여자의 모습과 하층서민의 도리에 어긋난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여자가 평생에 몸을 맡기는 것은 한 남자여야 하고, 인연이 끊어지면 출가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1권, 4권에서 주인공의 한 쪽을 출가시킨 사이카쿠의 의도와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권과 3권에서는 작자가 직접 개입하여 당시의 세태에 대해서 훈계하는 어조로 서술하는 부분이 많다.

‘너희들은 세상에 다시없는 불의를 저질러, 어디까지 도망가도 그 고난으로부터는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새롭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속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그만두고, 아깝게 생각하는 검은 머리를 자르고, 출가하려 따로따로 살며, 비뚤어진 마음을 버리고 불도에 들어오면, 세상사람도 목숨을 구해줄 것이다.’라는 진기한 꿈의 계시를 들었지만 ‘미래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이 좋아서 목숨을 걸고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문수(文殊)보살님은 남색(男色)의 도에만 이해가 있고, 여색(女色)의 쪽은 조금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라고 대답한 바로 그 때 이상한 꿈에서 깨고, 하늘의 하시다테(橋立)의 소나무에 바람이 울고 있었다.<sup>35)</sup>

위 예문에서 오산은 단고지(丹後路)에 이르러 구세도사(九世戶寺)의 문수당(文殊堂)에 참배할 때 꿈에서 문수보살의 계시를 받게 된다. 계시에서 문수보살은 밀통한 오산과

모에몬에게 출가를 하여 속세의 죄를 씻으라고 하지만, 오산은 오히려 문수보살이 여색을 모른다고 저항하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이처럼 오산과 모에몬은 내세를 부정하고, 현실 속에서 두 사람의 세계를 찾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도주를 하지만, 결국 좌절되고, 처형됨으로써 현실 속의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인녀』에서는 미혼녀인 1권과 4권의 오나쓰, 오시치와 기혼녀인 2권과 3권의 오센, 오산의 사랑을 하게 되는 동기, 결말에 이르는 방법, 결말구조가 다른 시각으로 그려지고 있다.

사이카쿠는 여기에서 미혼의 여성이 한 사람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부모의 승낙이 없어도 불의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신분이 다른 연애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처형의 대상이 되었던 부모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애결혼, 소위 밀통은 불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또는 사별(死別)해서, 재혼을 바라는 일이야말로 불의라고 해야 할 것이다(夫ある女の、外に男を思ひ、または死別れて、後夫を求るこそ不儀とはも申べし。」라고 하여 남편이 있는 여성의 사랑은, 조건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소위 간통으로 인정하고, 불의라고 규정하고 있다.<sup>36)</sup>

앞의 예문은 사이카쿠가 『오인녀』의 여주인공들을 어떤 관점에서 서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진보(神保五弥)는 사이카쿠가 『오인녀』를 발표하기 전해인 조쿄(貞享) 2년에 간행한 『사이카쿠쇼코쿠바나시』(西鶴諸國はなし)의 권4의 2장인 「시노비오우기노 나가우타」(忍び扇の長歌)에서 미혼의 젊은 남녀의 사랑이 제도과 법률의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 쪽은 죽고 다른 한 쪽은 살아남아 출가해서 정절을 지킨다는 내용과 『오인녀』의 1권을 비교하면서 한 쪽이 처형되고 한 쪽이 출가한다고 하는 스타일이 일치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忍び扇の長歌」에서 추격자에 잡힌 와카사무라이(若侍)가 그날 밤 처형되고, 집에 끌려온 히메기미(姫君)가 자살을 권유받는 장면에서의 세태에 대한 평가와 『오인녀』 2권에서의 평가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본다면, 사이카쿠가 『오인녀』에서 여주인공을 바라보는 시각의 관점을 이미 전 작품인 『사이카쿠쇼코쿠바나시』(西鶴諸國はなし)에서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간통을 바라보는 사이카쿠의 이러한 시각이 『오인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인녀』에서는 1권과 4권의 미혼녀인 오나쓰, 오시치와 2권과 3권의 기혼녀인

오센, 오산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서술되어지고 있다. 1권과 4권에서 주인공의 한 쪽이 죽은 후에 출가의 과정을 한 장에 걸쳐 서술한 것에 비해, 2권과 3권의 결말은 짧게 끝나고, 사후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즉 『오인녀』에서 2권, 3권에서는 여주인공들의 연애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지 그 결말구조는 작품 속에서 간략하게만 서술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 각 권의 서술에 있어서도 1권과 4권에서는 주인공의 죽음을 슬퍼하고 한탄하는 구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한 쪽이 처형당한 후, 상대방이 출가에 이르는 과정을 한 장에 걸쳐서 상세히 서술한 반면에 2권, 3권에서의 결말은 간단하게 서술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오나쓰, 오시치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밀통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지 않다. 이들의 결말도 연애의 한 쪽 상대가 죽고, 한 쪽은 출가하게 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비극적 결말이라 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 내세관을 의미하는 출가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연인과의 사별을 통해 출가하는 것은 내세에 있어서의 사랑, 또 다른 연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오나쓰, 오시치에게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연애과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나쓰와 오시치는 연애의 상대 남자와의 둘 중 하나가 출가를 하여 내세에서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준 반면에, 오센과 오산에게는 상대남자도 함께 사형을 당하든지, 오센의 경우에는 자살을 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오인녀』에서 미혼인 오나쓰·오시치와 기혼인 오센·오산이 다른 시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은, 『오인녀』의 여주인공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인녀』가 도덕과 제도에 반발하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그린 것이라고 본다면, 2권과 3권의 오센·오산의 이야기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 부분들과 혼계조로 서술된 부분들은 분명히 이것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2권과 3권의 서술은 여주인공들의 비참한 말로를 드러내어 조난을 혼계하고, 그러한 행위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오인녀』에서 미혼녀와 기혼녀에 대한 시각을 달리한 것은 실제사건을 모델로 새로운 창작을 가미하면서 작가가 당시의 출판물에 대한 단속령<sup>37)</sup>을 감안하여, 작가 스스로의 자율규제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미혼인 오나쓰와 오시치에 있어서는 비록 당시의 도덕과 제도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출가를 통해 내세에서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지만, 기혼인 오센과 오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

한 훈계조의 어조로 서술하고 그들의 최후를 묘사함에 있어서도 오나쓰와 오시치에게서 보이는 동정적인 어조는 보이지 않고 비극적 결말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 Ⅲ.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이하라 사이카쿠의 『호색오인녀』(好色五人女)의 각 권의 결말 구조를 중심으로 여주인공들이 사랑을 하게 되는 동기, 작가의 여주인공들에 대한 서술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작가가 『오인녀』에서 여주인공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것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하여 논해보았다.

『오인녀』에서는 각 권의 여주인공의 사랑의 동기에 있어서 1권과 4권의 여주인공 오나쓰와 오시치는 상대방에 연모를 느껴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랑이 시작된 것에 비해서, 2권과 3권의 오센과 오산은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밀통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원인이 1권과 4권 같은 경우는 밀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돈을 훔친 누명과 방화라는 다른 이유로 묘사함으로써, 오히려 이들의 밀통이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각 권의 결말 구조, 결말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다르게 묘사함으로써, 각각의 여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미혼여성인 오나쓰와 오시치에게는 자신이나 상대방 어느 한 쪽이 출가하는 방식을 통하여, 현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내세에서의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비록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한탄적이고 동정적인 어조로 일관함으로써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기혼여성인 오센과 오산에 대해서는 창에 찢려 죽거나 사형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세간의 평가는 거의 생략되어 있고, 텍스트 곳곳에서 이들의 행동과 당시의 세태를 훈계하는 듯한 어조의 묘사를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오인녀』에서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한 다섯 여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통해서 봉건도덕과 제도에 대한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면 이런 시각차이는 그런 의도가 스스로의 이중적인 잣대에 의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오인녀』에서의 각 권에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한 취향과 여주인공들에 대한 서술이 당시의 시대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는 정치적으로는 쇼군 쓰나요시(綱吉, 1646~1709)의 시대로, 쇼군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강화되고 유교적 봉건제도와 도덕이 강조되었다. 엔보(延寶) 8년(1680)에 취임한 쓰나요시는 열렬한 유교의 신봉자였고, 막정(幕政)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풍속에 대한 단속은 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가장 먼저 강요되어 진 것이 충효와 부부·형제·친척 간의 관계였고, 그 다음이 검약에 대한 명령과 정직근면의 장려였다. 충효를 강조한 것은 신분제도와 가부장제도의 확립을 의미하고, 검약에 대한 명령은 경제력을 토대로 성장한 조난계층을 견제하려는 막부의 의도가 그 배경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오인녀』는 다섯 명의 여성에 대한 비극적 이야기를 실제 모델로 하여, 그 위에 새로운 취향을 가미되어, 실설(實說)과는 다른 이야기가 창작된 것이다. 이는 다시 여주인공들에 있어서는 미혼과 기혼에 있어서 시각차이를 두어 서술하고 강조함으로써 작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작품 내용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오인녀』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의식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러한 의식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注】

- 1) 오사카의 서사(書肆) 森田庄太郎에 의해 출판되었고, 외제(外題-책 표지에 쓴 제목)에는 『好色五人女 入一-五』라고 되어 있는 것 외에, 각 권 내용에 관련된 각서(角書-제목이나 책이름 위에 두 줄의 작은 글씨로 그 내용을 적은 것)가 있고, 목록제목에도 『好色五人女』 이외에, 각 권의 취향에 따른 방제(傍題)가 붙어 있다. 삽화는 吉田半兵衛가 그렸고, 한시타(版下)는 필자불명이고, 서문과 발문도 없으며, 작자의 서명·인기(印記)도 없다. 이처럼 서문과 발문이 없고, 작자의 서명과 인기(印記)가 없는 점을 들어서 森銃三는 『오인녀』가 사이카쿠의 작품이 아니라, 北條団水の 작품이거나, 대작(代作)·조작(助作)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好色五人女』私見』 『文學』(岩波書店, 1956. 12月) 森銃三의 주장처럼 서지학(書誌學)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인녀』가 사이카쿠의 작품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문체적인 면이나, 작품을 통해서 흐르는 정신이나 시정이 사이카쿠만의 독자적인 것이고, 동시대의 어느 작가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움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카쿠의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현재의 일반론을 따라 『오인녀』가 사이카쿠의 작품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2) 『浮世草子』는 문학사용어로, 당시의 호칭은 아니지만, 이하, 사이카쿠의 소설류를 「浮世草子」라고 부른다.
- 3) 에도시대 중기, 가도즈케(門付け-남에 집 문 앞에 서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예능을 연주하거나 해서 금품을 받는 것)예능인들이 사미센(三味線)을 반주로 부른 속요의 일종. 종교적인 제식제문이



중세부터 근세초기에 걸쳐서 아마부시(山伏-불도수행을 위해서 산야에서 기숙하는 승려)에 의해 속화되어 예능화된 것.

- 4) 野間光辰는 당시 향간(巷間)에 유포되어 있던 가제문(歌祭文)에 사이카쿠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라고 한다. 즉, 『오인녀』보다 1개월 빠른 조쿄(貞享) 3년 정월에 간행된 『호색삼대담』(好色三代男)3권에, 「当世のはやり歌こよひ天満のはしばしきけば、なみだ樽屋のなじみのと、云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호색훈몽도휘』(好色訓蒙図彙)(조쿄 3년 4월)에도 가제문을 인용해서 「じたいおせんはだてこきじや、ぬけ州じゃ」라고 되어 있는 등 『오인녀』 이전에 이미 가제문이 유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野間光辰 『西鶴年譜考証』(中央公論社, 1983) 318쪽>  
또 사이카쿠 자신이 1권의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당시 가미가타(上方)에서는 교젠(狂言)으로 구성되고, 먼 나라의 마을들에 까지 둘의 이름은 전해진 것이다.(其頃は上方の狂言になるし、遠國村々里々迄ふたりが名を流しける)」라고 하여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5) 「男持つならたつた一人持つものぢゃ」(『大経師昔暦』) <高尾一彦 『近世の庶民文化』(岩波書店, 1097) 44쪽>
- 6) 막부는 일반의 연애는 봉쇄한 반면에, 공창·사창의 유리(遊里)를 아쿠쇼(惡所)라고 칭하면서도 사회의 안전관으로 묵인하고, 도덕권외에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조난남성들에게는 신분제를 벗어난 해방지역이 존재한 반면에, 여성에게는 가부장제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즉 여성의 가부장제로부터의 이탈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7) 1권의 오나쓰는 출가를 하고 세이주로는 사형을 당한다.  
2권의 오센은 자살을 하고, 쇼에몬은 사형을 당한다.  
3권의 오산과 모에몬은 사형을 당한다.  
4권의 오시치는 사형을 당하고 기치사부로는 출가를 한다.  
5권의 오만과 겐코베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 8) 又もなき嘆き、見し人、不便をかけざるあはなし。(텍스트 272쪽)
- 9) 哀れや、二十五の四月十八日に、その身を失ひける。さてもはかなき世の中と、見し人、神は村雨の夕暮をあらそひ、惜しみ悲しまぬはなし。(텍스트 274쪽)
- 10) 世の哀れはこれぞかし。(텍스트 275쪽)
- 11) 是ぞ戀の新川舟をつくりて(텍스트 276쪽)
- 12) されは、一切の女、移り氣なる物にして、…(中略)… 人恐るべきこの道なり。(텍스트 300쪽)
- 13) あしき事はのがれず、あなおそろしいの世や(텍스트 305쪽)
- 14) 夫婦のかたゆひふかく。三と世が程もかさねけるに、明暮世をわたる女の業を大事に(中略)かような女ぞかし。(텍스트 316~317쪽)
- 15) すへすべは何にならふとかまはしやる。こちやはがすきにて、身に替へての脇心(텍스트 332쪽)
- 16) 塵の世じゃ物と、なおおやむ事なかりし。(텍스트 332쪽)
- 17) さらさら最後いやしからず。世語りとはなりぬ。今は淺黄の小袖の面影、見るやうに名は残りし。(텍스트 336쪽)
- 18) 其日の小袖郡内嶋のきれぎれも、世の人拾ひもとめて、すへすべの物語の種とぞ思ひける。(텍스트 360쪽)
- 19) この前髪散るあわれ、坊主も剃刀投捨て、盛なる花に時の間の嵐のごとく、思ひくらぶれば、命はありながら、お七最後よりは、なほ哀れけり。古今の美僧、これを惜しまぬはなし。惣じて戀の出家、まことあり。吉三郎兄分なる人も、古里松前に歸り、墨染の袖とはなりけるとや。さてもさても、取集めた戀や、あわれや。無常なり、夢なり、現なり。(텍스트 364쪽)
- 20) 사이카쿠가 마지막을 해피엔드로 끝낸 것은 俳諧師였던 사이카쿠가 俳諧에서 최후의 句는 반드시 밝은 내용이어야 한다는 俳諧의 揚句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작법 규칙에 이끌린 것이라고 한다. 또

한 『오인녀』보다 앞선 호색물 작품에서도 사이카쿠는 이러한 취향을 따르고 있다. 〈暉峻康隆 『西鶴評論と研究』上(中央公論社 1948)〉 〈井原西鶴, 校注 暉峻康隆, 東明雅 『好色五人女』, 『井原西鶴集1』(小學館, 1996) 578쪽 해설부분에서 재인용〉

- 21) 浮世ぐるひせし甲斐こそあれ。さて内証に、しこなしのよき事もありや。女のあまねくおもひつくこそゆかしけれ」と、いつとなくおなつ、清十郎に思ひつき(텍스트 262~263쪽)
- 22) かの御手をとりて、難儀をたすけ申しけるに、この若衆我をわすれて、自らが手をいたくしめさせ給ふを、はなれがたかれども、母の見給ふをうたてく、是非もなく立ち別れさまに、覺えて毛貫をとりて歸り、又返しにと跡をしたひ、その手を握かへせば、これよりたがひの思ひとはなりける。(텍스트 343~344쪽)
- 23) 「おもへばおもへばにくき心中、とてもぬれたる袂なれば、このうへは、是非におよばず、あの長左衛門殿になさけをかけ、あんな女に鼻あかせん」と思ひそめしより、各別のころごし、ほどなく戀となり、しのびしのびに申しかはし、いつぞのしゆびをまちける。(텍스트 304쪽)
- 24) 「さりとは、にくさにくし、世界に男の日照はあるまじ。りんも大かたなる生れ付き、茂右衛門め程なる男を、そもや持かねる事やある」と、かさねて又、文にしてなげき、「茂右衛門を引きなびけて、はまらせん」と、かずかず書きどきて、つかはされける程に(텍스트 320쪽)
- 25) 案のごとく、清十郎めし出されて、思ひもよらぬ詮義にあひぬ。但馬屋内藏の金戸棚にありし小判七百兩見えざりし。これはおなつに盗み出させ、清十郎とりてにげしと云ひ触れて、折ふし悪しく、この事ことはり立ちかね、哀れや、二十五の四月十八日に、その身をうしなひける。(텍스트 274쪽)
- 26) 「さきもあらば、吉三郎殿にあひ見る事の種ともなりなん」と、よしなき出来ごころにして、悪事を思ひ立つこそ因果なれ。すこしの煙立ちさわぎて、人々、不思議と心懸け見しに、お七が面影をあらはしける。これを尋ねしに、つつまずありし通りを語りけるに、世の哀れとぞなりにける。…(中略)…入相の鐘つく頃、品かはりたる道芝の辺にして、その身はうき煙となりぬ。(텍스트 357~359쪽)
- 27) 「ただ今むなしうなり給ひてやうなし。まことならば、髪をもおろさせ給ひ、すずすゑなき人をとひ給ふこそ、ばたいの道なれ。…(中略)…その頃は上方の狂言になし、遠國村々里々まで、ふたりが名を流しける。これぞ戀の新川、舟をつくりて、おもひをのせて、泡のあはれなる世や。(텍스트 276쪽)
- 28) 덴포기(天平期)의 우대신(右大臣) 후지와라노 도요나리(藤原豊成)의 딸로서, 16세 때 대화당마사(大和当麻寺)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고, 연(蓮)의 실로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의 내용을 표현한 만다라(曼荼羅)를 엮었다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인물.
- 29) 이처럼 비극적인 사랑 끝에 주인공이 출가하고 둔세(遁世)한다고 하는 취향은, 『七人比丘尼』 소재의 일화와 같이 일본에서의 전통적 모노가타리(物語)의 주류의 하나로서 자주 이용되어진 형태로, 이 부분에서 독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車眞淑 『好色五人女』의 여주인공의 특색(慶熙大大學院, 1995) 32쪽〉
- 30) この事、お七親より聞きつけて、「御歎きもつともとは存じながら、最後の時分、くれぐれ申し置けるは、吉三郎殿、まことの情ならば、うき世捨てさせ給ひ、いかなる出家にもなり給ひて、かくなり行く跡をとほせ給ひなば、いかばかり忘れ置くまじき。二世までの縁は朽ちまじと申し置きし」(텍스트 364쪽)
- 31) 相性よく、仕合せよく、夫は正直のかうべをかたふけ、細工をすれば、女はふしかね染の縞を織りならひ、明くれかせぎける程に、盆前、大晦日にも内を出違ふほどにもあらず、大かたに世をわたりけるが、殊更、男を大事に掛け、雪の日、風の立つ時は食つぎを包みおき、夏は枕に扇をはなさず、留守には、宵から門口をかため、ゆめゆめ外の人にはめをやらす、物を二ついへば、「こちのお人々」とうれしがり、年月つもりてよき中に、ふたりまでうまれて、な

- ほなほ男の事をわすれざりき。(텍스트 299~300쪽)
- 32) 花の夕、月の曙、この男、外を詠めもやらずして、夫婦のかたらひふかく、三とせが程もかさねけるに、明暮、世をわたる女の業を大事に、手づからべんがら糸に氣をつくし、すゑすゑの女に手袖を織らせて、わか男の見よげに、始末を本とし、寵も大きくべさせず、小遣帳を筆まめにあらため、町人の家にありたきは、かやうの女ぞかし。(텍스트 316~317쪽)
- 33) 그런데 여자라는 것은 변덕스러운 것으로 잘 지어놓은 정사 이야기에 제정신을 빼앗기거나, 道頓堀의 つくり狂言을 보고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생각하거나 하는 동안에, 어느 사이에 마음을 훌뜨리고, 天王寺의 벚꽃이 지기 전이나 觀音堂의 등나무 시렁이 한창일 때 나가서, 잘생긴 남자에게 바람기를 일으키고 평생을 보살피주는 남편에게 싫증을 내고 있다.(「されば、一切の女、移り氣なる物にして、うまき色咄に現をめかし、道頓堀の作り狂言をまことに見なし、いつともなく心のみだし、天王寺の櫻の散り前、藤のたなのさかりに、うるはしき男にうかれ、かへりては、一代やしなふ男を嫌ひぬ。」)(텍스트 300쪽)(밑줄 인용자)
- 이 여자가 오늘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이 여자가 바람기가 있는 여자라고는, 나중에 되어 알 수 있는 것이다.(「花の色はこれにこそあれ、いたずらものとは、後に思ひあはせ侍る。」)(텍스트 315쪽)(밑줄 인용자)
- 이처럼 2권과 3권의 おせん, おきん은 원래부터 바람기가 있는 여자로 그려지고 있다.
- 34) かやうのかたらひ、さりとはさりとはおそろし。死別れては、七日も立たぬに後夫をもとめさらられては五度七度の縁づき、さりとは口惜しき下々の心底なり。…(中略)…この事のやみがたし。世に神あり、むくいあり、隠してもしるべし。人おそるべきこの道なり。(텍스트 300~301쪽)
- 35) 「汝等、世になきいたづらして、何國までか、その難のがれがたし。されども、かへらぬむかしなり。向後浮世の姿をやめて、惜きとおもふ黒髪を切り、出家となり、二人別々に住みて、悪心さつて菩提の道に入らば、人も命をたすくべし」と、ありがたき夢心に、「すゑすゑは何にならうとも、かまはしやるな。こちや、これがすきにて身に替へての脇心。文珠さまは、衆道ばかりの御合点、女道はかつて、しろしめさるまじ」といふかと思へば、いやな夢覺めて、橋立の松の風ふけば(텍스트 331~332쪽)
- 36) 神保五弥 「『好色五人女』ノート」『西鶴論輯』(中央公論社, 1975) 323쪽
- 37) 에도시대의 출판의 금령(禁令)은, 당연한 것이지만, 출판에 의한 영향력이 당국(当局)의 불안을 일으킬 정도의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발령되었다. 간분(寛文) 7년(1630), 그리스도교의 금압(禁壓)을 위한 수단으로서 금령이 내려지고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교 관계서의 수입금비가 중심이고, 일반의 서적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 알려진 일반서의 금령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메이레키(明歴) 3년(1657)에 교토에서 내려진 것이지만, 그 내용은 「和本の軍書類」를 중심으로 한 간단한 단속령이다. 이어서 간분(寛文) 13년(1673) 5월, 에도에서도 금령이 내려진다. 출판업이 확립하고, 본격적으로 서적이 출판되어 나오는 시점이 되어, 당연히 출판물에 대한 단속이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谷協理史 『江戸のこころ』(新典社, 1982) 196~197쪽>

## 【參考文獻】

### <텍스트>

井原西鶴, 校注 暉峻康隆, 東明雅 『好色五人女』, 『井原西鶴集 1』(小學館, 1996)

<단행본>

- 今野達 佐竹昭廣 上田閑照 編 『日本文學と仏教』 第四卷(岩波書店, 1994)
- 黒羽英男 『日本の近世文學』(文化書房, 1963)
- 慶応義塾大學國文學研究會 『西鶴 研究と資料』(至文堂, 1957)
- 高尾一彦 『近世の庶民文化』(岩波書店, 1997)
- 谷脇理史 『元祿文化西鶴の世界』(教育社, 1982)
- 谷脇理史 編 西鶴必携-別冊國文學45-』(學灯社, 1993)
- 暉峻康隆 郡司正勝 『元祿文芸復興』(至文堂, 1966)
- 暉峻康隆 野間光辰 編著 『西鶴』(三省堂, 1969)
- 中嶋隆 『西鶴と元祿メディア』(日本放送出版協會, 1994)
- 西村汎子 외 3인 編, 『日本女性の歴史』(吉川弘文館, 2000)
- 日本文學研究資料刊行會 『西鶴』(有精堂, 1978)
- 野田壽雄 『西鶴』(三一書房, 1959)
- 野田壽雄 『近世小説論考』(塙書房, 1961)
- 野間光辰 『西鶴新新攷』(岩波書店, 1981)
- 野間光辰 『西鶴年譜考証』(中央公論社, 1983)
- 長谷川強 山根有三 兒玉幸多 編 『図説日本の古典 井原西鶴』(集英社, 1978)
- 藤江峰夫・市古夏生 『井原西鶴』(べりかん社, 1989)
- 服藤早苗 『平安朝の女と男』(中公新書, 2000)
- 松本四郎 『西鶴と元祿時代』(新日本出版社, 2001)
- 森銚三 『井原西鶴』(吉川弘文館, 1958)

## 『好色五人女』の女性観

李忠浩

本稿では、井原西鶴の『好色五人女』の各巻の結末構成を中心として女性主人公たちが「戀」するようになる動機、結末に至るまでの方法、作家の女性主人公たちに對する叙述觀點を把握することによって、作家が『好色五人女』で女性主人公を見る視覚の違いを詳しく調べ、これを時代的背景と関連させ論じてみた。

『好色五人女』では各巻の女性主人公の戀の動機において、1巻と4巻の女性主人公である「お夏」と「お七」は相手に戀慕を持ち、眞ごころでその戀がはじまったのに比べ、2巻と3巻の「おせん」と「おさん」は、瞬間的な感情にこころを奪われ密通をする事になる。

そして主人公を死に至らす悲劇的な結末となる原因は、1巻と4巻では、「密通」によるものではなく、「お金を盗んだ疑い」と「放火」という異なった理由で描寫をし、むしろ主人公たちの「密通」が死に当たる程ではないことを逆に見せている。そして各巻の結末構成、結末についての世間の評判を別に描寫し、各々の女性主人公を見る視覚が違ふという事を見せている。即ち、未婚女性である「お夏」と「お七」には、本人または、相手の男性が出家をするという形で、現世の戀が叶わなかった事を來世の戀として、續けられる余地を与えている。そして、主人公たちが悲劇的な結末を迎える事になるものの、これをみる作家の視線は同情的な調子で一貫しており、否定的なものではない事を見せている。

これに比べ、既婚女性である「おせん」と「おさん」については、「磔」になることや、「死刑」になるなど悲劇的な結末はもちろん、これを見る世間の評判はほとんど省略されていて、テキストの各所でこれらの行動と、当時の世態を訓戒するような調子の描寫を通しこれらに對して、否定的な視線を見せている。

『好色五人女』では、自由な戀愛を追求した五人の女性が死に至る悲劇的な結末を通し、封建道徳と制度に對しての抵抗意識を表そうとするならば、このような「未婚

女性」と「既婚女性」に對しての視覺の違ひは、作家の思惑が現實の限界にぶつかっていると言えらう。これは『好色五人女』での各卷の構成においての多様な趣向と女性主人公たちについての叙述が当時の時代相と密接な關係があるからであるが、これは作家が当時の「出版禁止令」などの社會的影響に對しての自律的な規制と思われる。